



말씀

“오늘 왜 모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아플까 걱정이고, 재산이 많아도 걱정이며, 혹시나 불행이 찾아들까 걱정합니다. 요즘에는 나라 걱정, 코로나19 걱정, 거기다가 야구 걱정까지, 온통 걱정뿐이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본질을 잃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 음식의 본질이 뭘까요? 플레이팅일까요, 아니면 맛일까요? 당연히 맛이지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자꾸 화를 내는 백종원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스스로 요리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조리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도 음식에 대한 한 마디 한 마디에서 뭔가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건 그가 살아온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음식=맛’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맛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삶도 그러합니다. 신부님은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준에서 마냥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님이 이 고단한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 나라 조선팔도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셨던 주님의 삶, 그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역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휴일에 성당에 왜 모이셨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아닙니다. 사랑이란 한마디 말을 당신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사랑이란 말이 어렵다면, 그저 좋은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남들이 꺼리는 일을 웃음 지으며 행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인식(세례지요환)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2역대 24,18-22
- 회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제 2 독 시 로마 5,1-5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 음 마태 10,17-22
-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최인길 마티아



성인명: 최인길 마티아 (崔仁吉 Matthias)

신분: 역관, 밀사, 순교자

활동연도: 1765-1795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1765년에 태어난 최인길(崔仁吉) 마티아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이벽 세례자 요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최인철 이나시오는 그의 동생이다. 최 마티아는 이승훈 베드로가 신앙을 전파하고자 선발한 최초의 회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최 마티아는 입교 초기부터 동료들과 함께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으며, 윤 바오로가 1790년에 북경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는 성직자 영입 운동에 참여하였다.

한양 계동(현, 서울시 종로구 계동)에서 1795년 초에 주 야고보 신부를 맞이한 최 마티아는, 주 신부의 안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밀고자에 의해 그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고 말았다. 다행히 교우들의 재빠른 처신으로 주 야고보 신부는 최 마티아의 집에서 빠져나와 여회장인 강완숙 골롬바의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그에 앞서 최 마티아는, 주 야고보 신부에게 피신할 시간을 벌어주고자 자신이 신부로 위장하고 집에서 포졸들을 기다렸다. 그가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어를 알았으므로 이런 계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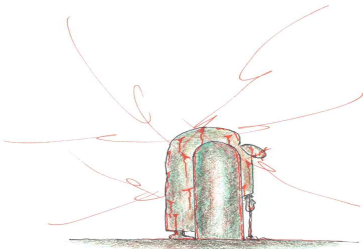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위장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체포된 지 얼마 안 있어 최 마티아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포졸들은 다시 주 신부의 행방을 좇으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최 마티아는 주 신부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곧 주 신부의 입국 경위가 밝혀지고, 그의 입국을 도운 밀사인 윤 바오로와 지 사바도 체포되고 말았다.

윤 바오로와 최 마티아와 지 사바는 체포된 날부터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이때 그들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굳은 인내와 결심,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은 박해자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들은 주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수없이 형벌을 가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천상의 기쁨이 넘쳐 얼굴에까지 번졌다. 이제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때려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윤 바오로와 지 사바와 최 마티아는 그날로 사정없이 매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이었다. 당시 윤 바오로의 나이는 35세, 지 사바의 나이는 28세, 최 마티아의 나이는 30세였다.

복 음 록 상

- 베냐민(베드로) 신부 / 예수회

우리 모두가 심하게 다루었지



병사들이	바로
그를	우리들.
심하게	
다루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아니,	심하게
	다루었지.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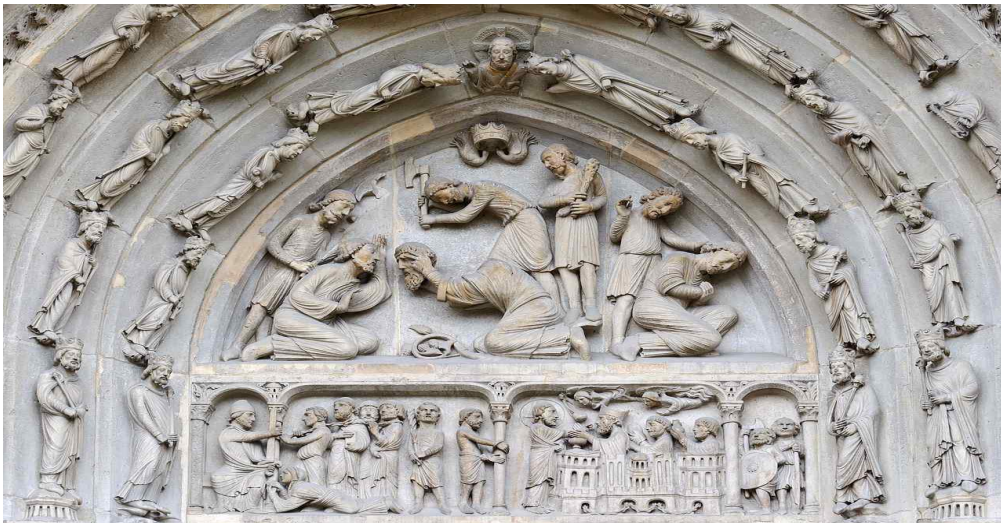
드니 성인



드니 성인은 프랑스의 수호성인으로, 3세기경 프랑스의 초기 주교였다. 258년에 있었던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두 동료 사제들과 함께 몽마르트 언덕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몽마르트 언덕은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성인은 목이 잘린 후에도 자신의 베인 머리를 들고 상당 가량의 거리를 설교하며 걸어갔고, 마침내 목숨이 끊어진 곳에 7세기경 - 지금은 건축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의 하나인 - 베네딕트 수도원 성당이 지어지게 된다. 생 드니 교회로 불리는 이 성당은 역대 프랑스 왕들이 묻혀 있어, 프랑스 혁명 때 묘들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드니 성인(생 드니, St. Denis)
노트르담 성당
(12세기경부터 지어져 지속적으로 보수됨)



드니성인의
참수장면
생 드니 교회
(7세기경부터
지어져 지속적
으로 보수됨)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4주일: 중장 농민기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밋자취를 따르”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